



편측성 완전 구순열에서 구순접합술의 이용

김태희*, 서일영, 류승희, 유선열
전남대학교 치과대학 구강악안면학교실

구순열은 가장 흔한 선천성 기형의 하나이며 그 치료방법은 몇 세기에 걸쳐 발전해 오고 있다. 그러나 구순열 치료방법들의 protocol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며, 구순접합술도 그 중 하나이다. 최근 들어 선천성 기형의 조기 교정이 최신 구순열 치료에 있어서 주목받고 있다. 그 이유는 주로 아동의 심리적 요인이 존중되기 때문이다. 비록 구순접합술의 궁극적인 목표가 심미성의 증진은 아니지만, 그것만으로도 환자의 부모들을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다. 편측성 혹은 양측성 구순열에서 구순접합술은 조기에 넓은 구순열을 좁혀 주고, 코의 형태를 증진시키며, 치조궁을 이상적인 위치로 재배열시키며, 최종적인 구순열 수복을 용이하게 하고 그 결과를 향상시키는 장점을 가지기 때문에 사용이 추천되고 있다.

우리는 편측성 완전 구순열 환자에서 구순성형술에 앞서 구순접합술을 시행하여 여러 가지 장점을 경험하고 좋은 결과를 얻었기에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The use of lip adhesion in unilateral complete cleft lip

Tae-Hee Kim*, Il-Young Seo, Seong-Hee Ryu, Sun-Youl Ryu

Dept. of Oral & Maxillofacial Surgery, Collage of Dentistr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Cleft lip is one of the common congenital anomalies and the method of management of cleft lip has been developed for several centuries. But there were debates upon the protocol of management methods and lip adhesion is one of them.

In the recent time, early correction of the congenital anomalies has become the focus of contemporary cleft lip care. The reason of that is mostly psychologic factor of children are respected. Although the propound object of lip adhesion is not esthetic improvement, that able to satisfy sufficiently parents of cleft children. In the unilateral or bilateral clefts, a preliminary lip adhesion has been advocated as a mean of narrowing the cleft at an early phase, of improving the nasal contour, and of molding the alveolar arch, and of easing and improving the result of a definitive lip repair.

We report some experiences of lip adhesion in children with unilateral complete cleft lip that obtained favorable results with a review of the literature.